

자녀 8명 둔 수급자 가정 승합차 사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

출산장려 못따라가는 복지정책 ‘헛바퀴’

차량 1600cc 미만 제한에

“고향 가기도 힘들다” 호소

지난 봄에 태어난 막내딸까지 모두 8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A(40·광주시 동구 계림동)씨 부부. 국민기초생활보조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가족들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승합차 구입을 계획했다가 포기해야만 했다. 동구청과 계림1동 주민센터를 찾아 수급자 가정의 차량 소유에 대해서 문의했다가 “수급자 가정은 생업용이 아닌 경우 승합차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5명이나 돼 낡은 승합차라도 구입해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이용하고 싶었다”며 “몇 년 전에 7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다고 사정해 봤지만 구청에서는 ‘승합차를 구입하면 매달 120만원 정도인 수급비를 줄수 없으니 승용차를 구입해 조심해서 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했다.

A씨가 승합차를 보유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조대상자의 경우 승합차 소유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에는 수급자의 경우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차량 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차만 소

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A씨가 지침을 어기고 승합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조대상자에서 탈락,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지침이 자녀수와 상관없이 모든 기초생활보조대상 가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가정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한 가정에 자가용이 2~3대씩 있는 상황에서 기초

생활수급자가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부자라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현 상황에서 승합차를 소유하게 되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며 “기초생활보조대상자 가정의 차량 소유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내려주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승합차 소유는 힘들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정책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국민기초생활 정책에서도 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온정 기다리는 무인 자선냄비



강추위가 이어진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에 설치된 무인 자선냄비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구세군 광주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동구 충장로, 서구 광주중학 버스터미널 등 5곳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최후항쟁지 도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농성 100일…기약없는 싸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가려졌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정부를 상대로 수개월째 농성 중인 사람들이 있다. 지난 9월 7일 시작됐으니 15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5·18 시민군 최후의 항쟁지 도청을 예술관으로 만들 수 없다’며 여름 막바지에 옛 전남도청 건물 앞에서 천막을 편 이들의 농성은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농성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상대가 5·18 등 민주주의 운동을 부정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하는 보수정권인데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농성 초반은 광주항쟁의 피해자인 5·18 3단체(유족·부상자·구속부상자회)가 주도했다. 도청 건물 곳곳에 새겨진 80년 5월 시민군들의 흔적이 담긴 옛 도청건물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관의 한 축으로 개관하려던 것을 몸으로 저지한 뒤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딸벌이래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농성 취지에 공감한 48개 시민단체가 가세했다. 일반 시민들도 힘을 보탰다. 이제는 낮에만 20~30명이 도청 보존을 위한 서명 운동과 함께 농성을 하고 밤에는 당번을 정해 5~6명이 건물 한 쪽에서 쪽잠을 잔다.

이들이 옛 전남도청 건물을 온종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학살 현장을 옛 모습 그대로 되살려 후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이다. 광주 시민을 향해 계엄군이 쏘아 낸 총탄 흔적을 품은 건물 외벽을 살리고, 항쟁 지도부가 대궐회의를 한 1층 상황실과 방송실을 재현해두자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 건물을 5·18기념관으로 만들고 그에 걸맞은 내용을 채워 넣자는 것도 그들의 바람이다.

5월 단체는 건물이 민주평화교류원이란 이름의 예술관으로 개관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지난 9월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 농성 100일을 맞은 이날 낮에는 5·18단체들이 그간의 투쟁을 함께해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결의를 다졌다. 5월에 가족을 잃은 오월여머니들은 “함께 해줘서 고맙다”며 손수 돼지고기를 삶고 흥어와 밀반찬 70인분을 준비해 내놨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농성장에 들어 3만원, 5만원씩 손에 쥐어주고 가는 분들, 음료수를 가만히 두고가는 시민들, 쌀을 보내온 시민들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내일 광주·전남 8차 촛불집회

주말인 17일 광주 금남로와 전남 17개 시·군에서 다시 촛불이 타오른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17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8차 광주시국촛불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오후 5시 금남로 일원에서 문화공연 등 사전행사를 열고, 촛불집회에 이어 오후 8시부터 시민 촛불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도 같은 날 오후 6시 순천, 목포, 여수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청각장애 환경미화원 안타까운 죽음

새벽 일하다 만취 상근예비역 차량에 치여 숨져

영하의 추위 속에 새벽일에 나섰던 청각장애 환경미화원이 만취한 육군 31사단 소속 상근예비역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장애인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일한 공로와 성실함을 인정받아 오는 30일 광주시장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옆 도로에서 안모(56)씨가 육군 31사단 소속 상근예비역 조모(21) 상병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안씨는 이날 오전 6시부 터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조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1%)을 넘은 0.146%로 측정됐다.

청각장애 3급의 안씨는 광주시 북구청 청소대행위탁업체 소속으로 25년째 일해왔다. 안씨는 성실한 성격으로 다른 동료들 챙기는 등 모범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30일 종무실에서 모범환경미화원으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

위탁업체 노조위원장은 “안씨는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동료와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했던 분으로, 장애는 있었지만 직원들과 항상 미소로 소통하며 술선수범했다”며 “최근에는 갈



15일 새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밑 도로에서 육군 상근병이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은 장애를 가진 아내와 함께 힘들게 키운 큰아들이 기업체 인턴에 합격해 좋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육군의 상근예비역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취침 시간(밤 10시)에 맞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확인 전화를 하게 돼 있고, 이 시간 이후에는 자택에 머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조 상병은 전날부터 서구 광천동에서 친구들과 사고 직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밤새 술을 마신 조 상병은 집에 들어 군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사단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조 상병의 신병을 인계받아 헌병대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요양병원 운영난에 빚더미

40대 한의사 숨진채 발견

요양병원 운영난으로 억대의 채무를 진 40대 한의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A(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방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절반 가량 비어 있는 양주병, 채권양도양수 서류 등이 놓여 있었다. A씨는 2년 전부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해오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병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채무는 4000만원이지만, 각종 채무서류와 지인 조사를 해보니 수억원대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에서 고인의 고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억도 안되는 공사대금 20억으로 부풀려 입주 방해



○~거액의 공사대

금을 돌려받지 못했

다며 480여세대 규모

의 오피스텔 주변에 철조망과 철제 담을 설치해 입주를 가로막은 건설업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배모(45)씨 등 11명은 지난 4월 7일부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 타워 오피스텔 사방에 담을 설치,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최모(18)씨 등 18

명의 진입을 막은 혐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각각 545명, 380억원에 이르는 중북분양사 기사건의 무대가 된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받고 관련 인허가 절차가 끝났는데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억원에도 미치지 않은 공사대금을 20억원대로 부풀리고선 무단으로 유지권을 행사한 배씨 일당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

/김형호기자 khh@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0(금)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3시
	박사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8(수)오후 3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 자격
2학년	○명 (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